

노년기 다문화가족에 개입되는 사회적 지지 요소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명 화(호서대학교 박사과정) · 이 윤 정(호서대학교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타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보인다. 2019년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예견됨(보건복지부, 2009)에 따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과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과 노년기에 대해 사회적, 학문적 관심뿐만 아니라 정책적 관심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국사회 다른 한편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남녀가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이다. 2008년 총 결혼건수의 11.1%가 국제결혼이며 이 중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결혼비율이 76.1%에 달한다(통계청, 2009:정순돌 외, 2010 재인용). 이러한 추세로 2020년에는 다문화가족이 10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최근의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인구고령화와 다문화가족의 비율 증가는 관련이 있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이 높는데, 이러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다문화가족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¹⁾. 도시로 떠난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로 인해 농촌에 남아있는 남성들이 신부감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국외에서 배우자를 맞이하는 현상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 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남성들의 연령은 부인보다 많아 중노년기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고, 확대가족 형태로 살아가는 비율 역시 높다(여성가족부 · 관계부처합동, 2012).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에 진입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한국의 시부모를 함께 부양하며 가족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배우자 만족을 기반으로 한 결혼만족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결혼만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예측된다. 2001년 국제결혼자의 이혼건수가 1,694건(총 이혼 중 1.3%)이던 것이, 2007년 8,294(총 이혼 중 6.7%)건으

1) 노인인구비율이 12% 이상인 지역은 총 9곳인데, 이 중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많은 곳으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도 속한다.

로 약 4배 이상 증가, 2011년에는 11,495(총 이혼 중 10.1%)건으로, 불과 10년 사이 10% 가까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 이는 한국인 부부의 이혼율 증가추이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9년 다문화실태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나이가 24세 이하는 21.1%, 25~29세는 20.2%로 30세 이하가 전체의 40%정도에서 이들 중, 24세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의 절반정도(45.4%), 25~29세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절반정도(45.7%)가 40대 이상의 배우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성 부부의 연령차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남편 간 평균연령 차이가 약 10세 이고, 남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간 평균연령 차이가 1.3세인 것과는 극명히 비교되는 점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이 베트남의 경우 17.0세 차이를, 캄보디아인 경우 17.5세의 큰 차이를 보였다(김승권 외, 2010).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많은 연령차와 고령화는 또 다른 문제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노인부양과 요양, 질병과 경제적 문제 등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부간 많은 나이차이로 청년기와 노년기, 장년기와 노년기 등 서로 다른 생애주기의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위의 두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다문화가족은 기존과는 다른 또 다른 역기능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향후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들에서 노년기 가족의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년기 남편과 함께 가족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그들의 결혼생활만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결혼만족도향상을 위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위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정 내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프로그램들이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사회지지 서비스가 개입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 적응이 신속히 이루어져 안정된 모습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라 하면 사회적 역할은 축소되고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부생활 재정립이 이루어지며 부모의 역할이 줄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속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부간의 연령차와 더불어 일반 한국인 노년 부부와는 다른 생활사건과 과업으로 결혼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년기 다문화가족 부부에게 최근 몇 년간 제공되어온 사회지지 서비스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궁극적으로 가정의 기본체계가 될 수 있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09년도 전국 실태조사로 이루어진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인 한국남성의 나이가 2009년 현재 만 65세인 경우로 정의해 대상을 선별하고, 조사대상인 결혼이민자의 응답을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에 사회지지 서비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결혼과 타국가로의 이주라는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온 국제결혼여성들 중 노년기 남편을 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고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해 시행되어온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며 나아가 서비스 개발과 개입의 우선순위 선정에 기초연구 자료로 일조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 가족관계적 특성, 인적지지요소, 사회서비스 수혜 경험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선행연구

1. 다문화가족의 부부체계

체계이론관점에서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다. 가족 내에는 또 다른 하위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하위체계들 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며 가족 내외적으로 체계를 유지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족의 하위체계들 중 가족을 구성하는 최초 단위인 부부체계는 가족생활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가족의 성공여부는 부부가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볼 정도로 가족체계 내의 중요한 하위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성장배경이 다르고 가치관 및 생활방식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축적으로 부부갈등을 유발하며 결혼생활불만족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남녀의 결혼은 부부간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사회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관심을 둔 다양한주체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임성옥 · 강성률, 2011; 김진숙 · 이혁구 · 이근무, 2010; 송지현 · 이태영, 2010).

하지만 이들 연구들이 단순히 결혼생활초기 적응과 갈등, 현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2006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남편의 평균연령은 42세이고 아내와의 나이차이가 약 9세 정도로 한국인 남성과 여성 이민자간의 결혼에서 보다 연령차가 더 크며(설동훈 · 이해경 · 조성남, 2006), 국제결혼이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20여년이 지난 현재 국제결혼부부들이 노년기 부부에 접어들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욱이 베트남국적 여성의 경우는 부부간 연령 차이가 평균 16세로 가장 높은 연령차를 보인다. 이처럼 부부간 연령차가 크고 국제결혼 현상이 이어진지 20년이 넘으면서 다문화가족의 고령화를 생각해볼

시점이며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노년기 부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도’의 개념으로 여러 학자들은 정의한 다(조성희·박소영, 2010).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조혜선(2003)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부라는 이차적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선호도’라고 정의하였다.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이영숙·박경란(2009)은 ‘배우자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목적으로 타국가로 이민을 온 경우이므로 그들의 결혼생활만족의 상당부분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의 집합체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혼만족도 개념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집합체로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도’로 정의 할 수 있겠다.

결혼만족도는 가정의 안정과 해체 혹은 전반적으로 부부의 결혼생활을 평가 할 수 있는 유력한 변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부관계나 가족에 관한 연구들에서 많이 조사 연구되고 있으며(임성옥·강성률, 2011; 이영숙·박경란, 2009; 김효민·박정운, 2012),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파악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을 이용 결혼만족을 연구한 조성희·박소영(2010)의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변인 중 종교,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 결혼기간, 자녀수, 교육수준이 결혼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상호작용 특성관련 변인에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성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변미희·강기정(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연령 차이와 결혼중개업소 이용 등과 같은 결혼관련변인과 다문화 가족 아내 관련 변인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관련 변인 중 남편의 우울, 다문화수용태도, 결혼만족도가 다문화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영향 변인을 연구한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는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의 일치, 결혼생활의 어려움, 부부함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국내의 혼인수급 불균형으로 농촌과 저소득층도시 남성들과 저개발국가 여성들과의 결합으로 타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관계로 결혼만족의 영향요인에서 아내와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특성 변인, 이들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적·인적지지서비스관련 변인도 포함시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타인, 집단, 지역사회와의 결속을 통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라고 정의되며 보살핌, 관심, 사랑, 인정, 도움, 이해, 가치감, 의사전달정도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in · Dean, 1977; 김정엽, 2010 재인용).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결혼이주여성당사자,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하여 역기능적 가족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 기능해주기를 기대하기에 이들의 결혼생활안정과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 공포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2006년 4월 법령시행 전 부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통해 추진되어오다,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 제공된 이후 2009년 상반기,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 발표되었다(이운정, 2010). 또한 법령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의 각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한국사회적응 교육과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 상담관련 프로그램, 아동양육지원, 임신 · 출산 지도서비스 등 외에도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제공 되고 있다(여성가족부).

이러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검증과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차츰 진행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를 내용으로 한 김순규 · 이주재(2010)의 연구는 이주여성의 언어능력과 사회적 지지는 한국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여성의 결혼생활효능감을 조사한 김혜원 · 임춘희(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한국어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높을수록 결혼생활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도 부부동반 교육 참여 경험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영향변인을 연구한 최정혜(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정보 일치 정도와 남편의 학력, 자녀수, 아내의 한국어 수준, 남편의 직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영향요인 연구 다수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족관련특성 차원에서 영향력을 검증하였지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한 결혼만족영향력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2008년 총 결혼건수의 11.1%가 국제결혼이며 이 중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결혼 비율이 76.1%이며 2020년 다문화가족의 수가 100만명이 되는 추세 속에서(삼성경제연구소, 2012)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결혼만족도영향력 검증은 정책의 실효성검증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발전방안모색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이민학회가 2009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 다문화연구의 주관심대상인 여성 결혼이민자 중, 한국에 지지기반이 많은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국적인 경우에서 그 중 한국 남편의 나이가 노년기에 들어선 만 65세 이상의 경우를 선택하여 총 236케이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특성과 가족관련변인의 특성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며,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만족의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를 순차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3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모형 1에서는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관계특성의 효과를 측정하고, 모형 2에서는 인적지지요소를 투입하여 효과측정을 하고, 모형 3에서는 사회서비스수혜경험 변인의 효과를 살펴본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며,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인구사회학적특성과 가족관계 특성, 인적지지요소, 사회서비스수혜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IV. 연구결과

1.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과 가족관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과 가족관계적 특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대는 50대가 26.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40대 21.6%, 30대 18.6%, 60대 15.7%의 순이고 다음으로 20대의 경우도 14%로 나타났다. 결혼 전 국적은 중국(한족과 기타민족)이 53.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베트남 25.8%, 필리핀 9.7%, 일본 6.4%, 캄보디아 4.2% 순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32.6%, 고등학교가 33.1%이고 대학교 이상의 경우도 11.4%이며, 무학의 경우는 3.0%였다. 현재 비 취업 상태가 60.5%로 취업 중인 경우 37.7%보다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은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의 전체 평균이 3.3(SD=1.1)이며, 전반적 건강상태는 3.4(SD=1.1)로 중간정도였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은 전체 25.8%로 차별받지 않음 67.4% 보다 적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를 만난방법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서가 29.2%, 가족친지소개가 21.0%, 친구동료소개가 23.3%, 종교기관을 통해서 8.9%, 그리고 스스로 만난경우가 8.9%로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 취업여부는 현재 취업 중인 경우는 58.1%로 현재 비취업인 경우 39.0%보다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결혼 생활기간은 평균 7.7년(SD=10.2)이며, 그 중 5년 이하가 5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년 21.2%, 11~15년과 16년 이상인경우가 각 6.3%, 6.4%로 나타났다. 부부의 연령차는 평균 22.7세(SD=13.2)로 10세~19세 차가 3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9세 차이 25.8%, 30세 이상 차이 26.3%, 10세 미만 차이는 16.5%로 나타났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0~100만원인 경우 30.1%, 100~200만원 22.0%, 50만원 미만 경우 16.5%, 200만원 이상의 경우 10.6%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배우자의 연령은 평균 69.3세(SD=5.0)로 65~69세가 72.0%, 70~74세 13.6%, 75~79세 8.9%, 80세 이상인 경우는 5.5%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31.4%, 중학교 23.3%, 대학교 이상 18.2%, 초등이하는 17.1%로 나타났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족관계적 특성

N=236

	구 분	빈도	%	M(SD)
성별	여자	236	100	·
연령	20대 이하	33	14	47세(13.7)
	30대	44	18.6	
	40대	51	21.6	
	50대	62	26.3	
	60대	37	15.7	
	70대 이상	9	3.8	
	계	236	100.0	
결혼전 국적	중국(한족, 기타민족)	127	53.8	·
	베트남	61	25.8	
	필리핀	23	9.7	
	일본	15	6.4	
	캄보디아	10	4.2	
	계	236	100	
교육수준	무학	7	3.0	·
	초등학교 졸업	44	18.0	
	중학교 졸업	77	32.6	
	고등학교 졸업	78	33.1	
	대학교 졸업 이상	27	11.4	
	계	233	98.7	
취업 여부	예	89	37.7	·
	아니오	143	60.5	
	계	232	98.2	
한국어수준	계	236	100	3.3(1.1)
건강상태	계	234	99.2	3.4(1.1)
자녀유무	있음	67	28.4	·
	없음	137	58.1	
	계	204	86.5	
차별경험	예	61	25.8	·
	아니오	159	67.4	
	계	220	93.2	
배우자만남방법	결혼중개업자	69	29.2	·
	가족친지소개	49	21.0	
	친구동료소개	55	23.3	
	종교기관에서	21	8.9	
	스스로	21	8.9	
	계	215	91.1	
배우자취업여부	예	137	58.1	·
	아니오	92	39.0	
	계	229	97.0	

<표 1-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족관계적 특성

N=236

구 분	빈도	%	M(SD)	M(SD)	
결혼생활기간	5년 이하	132	55.9	3.98(.793)	7.7년 (10.2)
	6~10년	50	21.2	3.80(.947)	
	11~15년	16	6.8	3.80(.941)	
	16년 이상	15	6.4	8.80(.941)	
	계	213	90.3	3.91(.850)	
부부 연령차	0~9세	39	16.5	3.81(.995)	22.7세 (13.2)
	10~19세	74	31.4	3.91(.685)	
	20~29세	61	25.8	3.96(.999)	
	30세 이상	62	26.3	3.98(.776)	
	계	236	100	3.98(.852)	
집 소유 형태	본인, 배우자 소유	114	48.3	3.88(.897)	·
	배우자부모 소유	22	9.3	4.13(.774)	
	전세, 월세	80	33.9	3.97(.837)	
	기타	14	5.9	3.84(.688)	
	계	236	100	3.93(.853)	
가구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9	16.5	3.94(.887)	·
	50~100만원	71	30.1	3.81(.809)	
	100~200만원	52	22.0	3.98(.836)	
	200만원 이상	25	10.6	4.00(.957)	
	계	187	79.2	3.91(.851)	
배우자연령	65~69세	170	72.0	3.95(.830)	69.3세 (5.0)
	70~74세	32	13.6	3.96(.982)	
	75~79세	21	8.9	4.05(.802)	
	80세 이상	13	5.5	3.38(.767)	
	계	236	100	3.92(.852)	
배우자학력	초등 이하	40	17.1	3.91(.721)	·
	중학교	55	23.3	3.80(.929)	
	고등학교	74	31.4	3.92(.850)	
	대학교 이상	43	18.2	4.09(.839)	
	계	212	89.8	3.93(.847)	

2) 인적지지요소

인적지지요소의 변인으로 모국가족 연락빈도와 힘들고 어려울 때 의논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국가족 연락빈도의 경우 전혀 연락 없음의 경우는 7.2%, 년1~3회 6.4%, 월 1~2회 35.6%, 주 1~2회 44.1%로 나타났으며, 어려울 때 의논상대를 모국인만 선택한 경우는 36%, 한국인만 선택한 경우는 33.1%, 모국인/한국인 모두 응답한 경우 6.4%, 아무도 없다 응답이 15.7%로 나타났다.

<표 2> 인적지지요소 해당 변인

N=236

구 분		빈도	%
어려울 때 의논상대	모국인형	85	36.0
	한국인형	78	33.1
	모국인/한국인중복응답	15	6.4
	고립형	37	15.7
	계	215	91.1
모국가족 연락빈도	전혀 없음	17	7.2
	년 1~3회	15	6.4
	월 1~2회	84	35.6
	주 1~2회 이상	104	44.1
	계	220	93.2

3) 사회서비스 수혜경험과 만족정도

사회서비스 수혜경험과 만족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교육 수혜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 42.8%, 수혜경험은 45.7%, 수혜경험자의 만족정도는 평균 3.94(SD=1.35)이며, 한국사회적응교육 수혜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 57.2%, 수혜경험은 28.8%, 수혜경험자의 만족정도는 평균 3.3(SD=1.35)이며, 가족상담 및 교육관련 수혜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 61.4%, 수혜경험은 23.3%, 수혜경험자의 만족정도는 평균 3.25(SD=1.50)이며, 임신 및 출산관련서비스 수혜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 65.7%, 수혜경험은 17.7%, 수혜경험자의 만족정도는 평균 2.97(SD=1.60)이며, 자녀양육 및 학습관련 서비스 수혜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 64.8%, 수혜경험은 18.6%, 수혜경험자의 만족정도는 평균 3.15(SD=1.62)로 제공된 사회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 만족이 가장 높았고, 한국 사회 적응 교육, 가족 상담 및 교육, 자녀양육학습수혜경험, 임신 및 출산관련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서비스관련 변인

N=236

구 분	빈도	%	M(SD)	
한국어 교육	받은 적 없다	101	42.8	3.94 (1.3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3	5.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2	0.8	
	보통이다	17	7.2	
	약간 도움 됨	22	9.3	
	매우 도움 됨	54	22.9	
	계	209	88.6	
한국사회적응 교육	받은 적 없다	135	57.2	3.33 (1.3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1	4.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5	2.1	
	보통이다	18	7.6	
	약간 도움 됨	18	7.6	
	매우 도움 됨	16	6.8	
	계	203	86.0	
가족상담 및 교육 관련	받은 적 없다	145	61.4	3.25 (1.5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3	5.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2	0.8	
	보통이다	13	5.5	
	약간 도움 됨	12	5.1	
	매우 도움 됨	15	6.4	
	계	200	84.7	
임신 및 출산 관련	받은 적 없다	155	65.7	2.97 (1.6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3	5.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4	1.7	
	보통이다	6	2.5	
	약간 도움 됨	9	3.8	
	매우 도움 됨	10	4.2	
	계	197	83.5	
자녀양육 및 학습 관련	받은 적 없다	153	64.8	3.15 (1.6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3	5.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2	0.8	
	보통이다	7	3.0	
	약간 도움 됨	9	3.8	
	매우 도움 됨	13	5.5	
	계	197	83.5	

4) 결혼만족도 수준

연구의 종속 변수인 조사대상자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3.9(SD=0.9)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각각의 응답 빈도는 만족 41.1%, 매우 만족 26.3%, 보통 22.9%, 불만 5.1%로 매우 불만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종속변수 수준

N=236

항목	N(%)	M(SD)
매우 불만	0(0)	
불만	12(5.1)	
보통	54(22.9)	
만족	97(41.1)	3.9(0.9)
매우 만족	62(26.3)	
계	225(95.3)	

5) 노년기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본 연구는 노년기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함이며, 인구사회학적·가족관련 변인과 인적지지요소, 사회서비스수혜경험의 변인들이 결혼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는 노년기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특성과 가족관련특성을 투입하여 모형 1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적지지요소를 투입하여 모형 2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수혜경험을 투입하여 모형 3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모형적합도(F=2.030*)는 유의하였고 R²(Adj R²)값은 .136(.069)로 13.6%의 설명력을 보였다. 차별경험과 전반적 건강상태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반적 건강상태가(β=.206, p<.05)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모형적합도(F=2.338**)는 유의하였고, R²(Adj R²)값은 .231(.132)로 모형의 설명력은 23.1%로 모형 1의 인구사회학적·가족관련변인만 투입했을 때 보다 9.5%의 설명력증가를 보였다. 차별경험이 있었을 때 보다 없을 때, 모국가족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을 때 보다 년 2~3회 빈도로 연락하였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할 사람이 없을 때 보다 연락할 한국인이 있을 경우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결혼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려울 때 의논상대가 한국인일 경우(β=.297, p<.01)이며, 다음으로 모국가족 연락빈도가 년 1~3회 이상(β=.222, p<.05), 차별경험 없음(β=.182, p<.0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의 회귀분석결과 모형적합도(F=1.984**)는 유의하였고, R²(Adj R²)값은

,272(.135)로써 모형 3은 27.2%의 설명력을 보였고 인적지지요소변인을 투입했을 때 보다 설명력이 4.1%증가 하였다. 모든 변수들이 다 투입된 최종모형에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초등이하 학력에 비해 대학 이상의 학력일 때, 차별경험이 없을 때, 모국가족 연락빈도가 전혀 없을 때 보다 년 1~3회 이상 또 주 1~3회 이상 일 때, 사회서비스수혜경험에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았을 때 보다 받지 않았을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이 투입 된 최종 모형 3에서 노년기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모국가족연락빈도가 전혀 없을 때 보다 주1~2회로 연락할 때($\beta=.366, p<.05$)이고,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수혜경험 중 한국적응교육을 받았을 때 보다 받지 않았을 때 ($\beta=-.305, p<.05$), 모국가족 연락빈도가 전혀 없을 때 보다 년 1~3회 연락할 때($\beta=.256, p<.05$), 초등이하 학력일 때 보다 대학이상 학력일 때($\beta=-.246, p<.05$),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았을 때 보다 차별받지 않았을 때($\beta=.234, p<.01$)의 순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학이상의 학력일 때와 사회서비스 중 한국사회적응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이하 학력일 때보다 대학이상의 학력일 때, 한국사회적응교육을 받았을 때 보다는 받지 않았을 경우 노년기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5>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N=236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인구 사회학적, 가족관계 변인	국적(기준;중국)	-.237	-.144	-.210	-.128	-.172	-.107
	학력(중졸)	-.069	-.040	-.154	-.088	-.209	-.125
	학력(고졸)	-.131	-.075	-.189	-.108	-.229	-.131
	학력(대학 이상)	-.381	-.151	-.435	-.176	-.599	-.246*
	취업(기준;비취업)	-.114	-.068	-.223	-.132	-.163	-.099
	한국어능력	-.112	-.151	-.078	-.103	-.043	-.059
	차별경험(기준;예)	.310	.167*	.345	.182*	.430	.234**
	건강상태	.160	.206*	.116	.150	.064	.083
	배우자취업(기준;비취업)	.070	.041	.132	.077	.159	.096
	배우자만남방법(중개업자소개)	-.058	-.033	.020	.012	-.089	-.052
	자녀(기준;없음)	.028	.016	-.023	-.013	-.084	-.048
	부부연령차	.006	.100	.009	.146	.010	.159
인적지지 관련변인	어려울 때 의논상대 (기준;고립형)	모국형		.228	.135	.157	.096
		한국형		.509	.297**	.377	.227
		혼합형		.398	.123	.400	.120
	모국가족 연락빈도 (기준;전혀없음)	년 1~3회 이상		.790	.222*	.850	.256*
		월1~2회 이상		.226	.137	.280	.172
		주1~2회 이상		.492	.296	.590	.366*
사회서비스 수혜경험 관련 변인	한국어 적응교육(기준;받음)					.243	.152
	사회적응교육(기준;받음)					-.531	-.305*
	가족상담 및 교육(기준;받음)					.285	.159
	임신 및 출산관련(기준;받음)					-.622	-.310
	자녀양육학습(기준;받음)					.409	.204
상수항		3.580***		2.883***		3.148***	
F값		2.030*		2.338**		1.984**	
R ² (Adj R ²)		.136(.069)		.231(.132)		.272(.135)	

p<.1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노년기 다문화가족에 가입되는 사회적 지지 요소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없을수록, 모국가족과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년 1~3회, 혹은 주 1~2회 이상 연락을 취할 때 결혼만족도는 높아졌으며,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한국사회적응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받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이 초등이하일 때 보다 대학이상의 학력일 경우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영향변인들 중 모국가족연락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보다 주1~2회 이상의 빈도로 연락 할 경우 결혼만족도에 가장 높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사회적응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결혼만족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간 많은 연령차와 고령화로 인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생애주기를 살면서 결혼만족은 어떠할까? 그 영향요인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의 결과에서 부부의 연령차는 회귀분석의 모든 모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차별경험은 3가지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남편의 나이보다는 한국사회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적지지요소에서 모국가족과의 연락이 있을 경우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모국가족들과 떨어져있지만 통신의 발달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환경이므로 다문화가정의 결혼만족을 높이는데 좋은 환경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에서 모국가족을 방문하거나 모국가족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면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 상대가 한국인일 경우가, 모국인일 경우 모국인/한국인 둘 다 일 경우 보다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정서적 안정을 이루고 결혼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한국인, 이웃이나 남편의 가족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문지도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족들과 밀착되어 그들을 지원하는 사례관리자나 방문지도사 등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적지지요소가 되고 업무 중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상담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 전문인력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중 사회적응교육 참여여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회적응교육에 참여한 경우에 비해 참여하지 않은 경우 결혼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 정도는 다른 결혼만족영향변인들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지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정착과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에 진입한 그들에게 결혼만족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에서 향후 사회서비스개발과 전달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경미(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만족도-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나영(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이주재(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순규·이주재(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승권(2010),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65(7), 5-18.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151), 29-52.
- 김은경(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 김은경(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 김정엽(2010),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2), 29-62.
- 김진숙·이혁구·이근무(2010),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연구-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30(12), 135-166.
- 김혜원·임춘희(201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27-53.
- 김효민·박정윤(2012),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43-68.
- 리해근·하규수(2012), 일상생활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2(6) 280-292.
- 박미정(2007),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조인주(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29-54.
- 박지윤·전명희(2012),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3), 383-392.
- 변미희·강기정(2010),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련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2), 127-141.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송지현·이태영(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2), 164-192.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2.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이영숙·박경란(2009), 기혼남성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18(2), 275-286.
- 이용균(2007),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 10(2,)35-51.
- 이윤정(2010),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지, 10(5), pp370-378.
- 임성옥·강성률(2011), 다문화가족 한국인남편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251-272.
- 전미숙(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배우자 인식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여진·안정신(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노년학, 30(2), 535-550.
- 정영숙·조설애·안정신·정여진(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5(1), 19-41.
- 조계화·이현지(2009), 한국 여성 노인의 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9(1), 21-32.
- 조성희·박소영(201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8), 149-174.
- 조혜선(2003), 결혼만족의 결정요인,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7(1), 91-115.
- 최정혜(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및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4), 153-171.
- 최현석·하정철(2012), 노인의 생활전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학회, 23(1), 131-142.
- 황정미(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1-38.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통계청(2012), 2011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노년기 다문화가족에 개입되는 사회적 지지 요소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경(남서울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노년기에 진입한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에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로 먼저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노년기의 다문화가족 결혼만족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년기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다문화가족이 생애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 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특징도 언급될 수 있다. 둘째, 노년기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론적 입장에서 가족관계, 인적 지지와 공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지지로 나눠 살펴보아 가족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망이 결혼만족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몇가지 점에서 본 연구의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목에서 노년기 다문화가족에 “개입되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분석을 보면 “개입되는”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인적 사회적지지 등이 모델별로 분석되고 있어 ‘노년기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특성,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째, 연구문제 1의 서술도 실제 다루어지고 있는 일반적 경향의 변인들이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연구대상자의 인적지지, 사회서비스 경험, 결혼만족도의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선행연구에서 1. 다문화가족의 부부체계라는 제목으로 본 연구의 접근방식이 체계이론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부부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부부체계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의 내용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제시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의 관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지부분에서 일부 제시되고 있어 차라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라는 제목으로 보완하여 고찰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표 1>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계적 특성에서 가족관계학적 특성이 분명히 어떠한 범주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

결과 분석 <표 5>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사대상자와 연구대상자의 표현통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특성과 남편(배우자)의 특성 변인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한국어 수준과 건강상태의 표제시가 생략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결혼만족도 영향요인의 분석 표가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인구사회학적, 가족관계변인이 동일선상에서 분석되고 있고, 아쉽게도 ‘결혼기간’ 등은 결혼만족도에 중요 영향변인일 것인데 삭제되어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목변수와 연속변수의 변인 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학력, 모국가족빈도 등이 한 변인으로 투입될 수 있는데 하위변인으로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R2 값은 높아질 수 있으나 회귀분석의 가정에 적합한지요?, 국적은 중국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국적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였는지요?(배우자 만남방법은?) 또한 B와 β 값에 비해 유의한 표시가 되지않은 변인들 등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 등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가 3.9로 만족에 가까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절대적 영향인지, 다른 영향력있는 변인탐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추후연구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